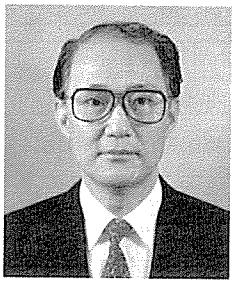
57년 창립 … 97·98년 국제학술대회

한국요업학회

1957년 창립된 한국요업학회는 60년대 들어 한양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요업과를 설립하면서부터 연구활동이 활발해졌다. 요업학회는 매년 봄 가을, 서울과 지방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産·學·硏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펼쳐 내년과 후년에 잇달아 국제학술대회를 유치, 행사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金 宗 熙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재료공학〉

요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산업이면서도 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첨단 재료를 창출하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요업제품이란 도자기, 유리, 내화물, 시멘트, 점토제품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품을 가리켰다. 이들은 거의 규산염을 주 성분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20세기 중반이 래 우주·항공, 기계, 전자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함께 요업도 새로운 요업(advanced ceramics)제품이 이들 첨단산업에서의 중요 소재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구성 성분도 산화물 외에 탄화물, 질화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원소가 대상이 되었으며, 그 기능도 기계구조, 전기, 광학, 열, 생체기능 등 다양한 기능재료로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업은 그 뿌리가 대단히 깊다. 고조선의 요업문화는 삼한을 거쳐 삼국시대로 계승되어 토기, 기와, 유리 등과 중세 이후 고려청자 및 조선조의 백자 등 세계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대화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공업전습소, 1912년에는 중앙시험소가 설립될 때 요업과 또는 요업부가 설치되었으며,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1916년이었다.

그해 4월에 설립된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염직, 응용화학, 토목, 건축학과와 함께 요업과가 개설되었으며, 그후 경성대학 이공학부 응용화학과에서도 규산염강좌가 개설되었다.

조선요업기술협회가 모태

〈학회의 모태〉 광복후 우리 요업인들은 요업부흥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였다. 당시 요업계의 부흥에는 산·학협동이 절실히 요망되었다. 요업계 인사들의 강인한 의지는 학계와 업계의 유대를 굳혔고, 조선요업기술협회(초대회장 안동혁, 대한요업총협회 전신)가 발족되었다. 초창기 협회는 요업관련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종로구 서린동에 있던 조선연와공업조합 건물에 사무실을 정하여 자리를 잡았고, 3백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였다.

우리 요업인들은 자금난, 연료난, 시설난 및 기술난 속에서도 공장재건, 운영과 기술상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였다. 한편 학술 연구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 「요업지조선(窯業之朝鮮)」을 김용관 주관하에 발행하였으나 계속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6.25로 큰 상처를 입은 요업계도 병화의 난을 면한 영·호남 일부지역에서 그 활동을 이어갔다. 연구활동도 부산 영도에 있던 대한도기(주)의 시험실에서 남기동·이종근을 주축으로 피난 학도들에 의하여 지속되었다. 1953년 환도에 따라 요업협회도 서울 중구 초동에 임시 사무소를 두었다가 1954년 9월에 종로구 서린동으로 이전하였다.

요업계는 해방 10주년 산업박람회에 요업관을 운영하는 등 발전을 보였으며, 1957년 UNKRA협조에 의한 기간산업 건설 3개중 유리·시멘트의 2개 공장이 건설되는 등 본격적인 근대화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발전기에 들어선 요업계의 여망으로 학계와 업계 인사들의 뜻이 모아져 요업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표로 요업학회가 창설을 보게 되었다.

▲ 지난해 10월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추계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면

57년 창립 … 초대회장에 김동일씨

〈학회 발족〉1957년 2월 22일 오후2시 대한요업총협회(종로구 서린동)회의실에서는 대한요업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장 김용관)가 개최되었으며, 이어 발기인회(대표 김동일)가 열려 정관 초안을 심의하고 3월 23일에 창립총회를 개최, 요업학회(회장 김동일)가 출범하였다.

이어 제1회 연구발표회 및 특별강연회가 열려 연구발표(4건) 및 특별강연(4건)이 있었다. 학회는 1960년 4월 28일 문교 제577호로 사단법인 대한요업학회로 인가받고 5월 30일 서울 지방법원 883호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1961년 8월 31일에는 문교부에 사회단체등록을 하였다.

학회의 발족과 함께 우선 사업으로 착수한 것이 오늘날의 학회지격인 주보(週報)의 발행이었다. 3월 17일 제1호의 발행을 시작으로 4년간 계속되다가 215호(1961년 5월 31일)로 중단되었다. 이 주보는 당시 우리 학계의 생동하는 정열의 모음으로 여러가지 역경 속에서 특히 문헌 정보의 빈곤, 재정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편집진은 매주 편집회의를 열고 원고를 정리하고 필경, 등사, 제책, 발송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투지와 희생적 봉사로, 그리고 요업협회를 비롯한 전체 요업인의 격려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요업관계 교육기관으로는 고등학교가 셋 있을 뿐 대학에는 요업과가 없던 상황하에서 학술과 기술의 광장으로 업계 소식, 신기술 소개, 외국문헌 소개 및 기술 강좌 등이 망라되었다. 그 후 약 3년이 지난 1964년 4월 30일에 「요업회지」 창간호가 요업협회와 공동으로 인쇄본으로 출간되었다.

요업학회가 창설되던 1950년대 후반 요업분야의 고등 교육연구기관으로는 공과대학의 화공과에서 요업과목의 설강으로 교육하였으며, 연구기관으로는 중앙공업연구소 요업과뿐이었다.

1960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양대학에 요업과가 창설되었으며 그 후 1960년대 말에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서울대, 인하대 등에 요업과가 창설되고, 한편 1965년에는 요업센터가 설립되고 1966년에는 KIST에 요업관련 연구실이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요업인구가 날로 증가하였다.

요업이 수출 전략산업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면서 1970년대에는 학회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기능의 능률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각 전문분과 부회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시멘트 부회가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시멘트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도자기 부회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학협동의 본보기를 보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각 부회의 심포지엄,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학회는 1974년부터 요업총협회와 공동으로 출간하던 회지 발간을 단독발행으로 바꾸고 학회업무도 독립운영체제로 내실화되었다.

1976년에는 대한요업학회에서 한국요업학회로 개칭 등기하였다. 당시 학회 종신회원을 발기인으로 8월 31일 법인 허가를 과학기술처에서 받고(48호) 9월 1일 법원 등기(1514호)를 마쳤다.

〈학회의 구성 및 주요 사업〉 학회의 구성은 정회원(종신회원 포함),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다.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외에 평의원회, 이사회가 있다 .

학회업무의 집행기구로는 간사회(간사장, 총무, 재무, 편집간사)가 있으며, 학

회업무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요업교육위원회, 요업진흥위원회, 국제학술교류위원회, 포상위원회, 규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요업용어제정위원회, 양송위원회, 성옥위원회) 및 부회(시멘트부회, 기초과학부회, 원료부회, 내화물부회, 유리부회, 전자재료부회, 도자기부회, 석고·석회부회, 기계구조연마재부회 등)가 조직되어 있다. 또 각 지역별로 지부도 결성되어 있고 구·미지구에 해외 지부도 결성되어 있다.

부회별로 논문집도 발간

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1)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2)회지를 비롯한 학술간행물 간행 (3) 연구 장려와 포상 (4) 국제 교류를 들 수 있다.

연구발표회는 1년에 춘·추계 2회 서울권과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부회에서 산학협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강습회 등도 전국적 규모로 또는 지역지부 주간하에 개최하여 산·학·연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학회 기관지로는 요업계소식 및 기술정보를 전해주는 「요업기술(격월간)」지, 연구논문을 다루는 「요업학회지(월간)」와 영문판 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Ceramics」(계간)를 발행하여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로 교류하고 있다. 한편 각 부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심포지엄의 발표논문집도 부회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요업관련 도서를 발행 보급하고 있다.

회원들의 업적을 포상하고 연구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학회상 시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학회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주는 공로상, 요업학술·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회원에게 학술상, 기술상, 학술진보상과 기술진보상을 시상한다. 특히 조선내화(주) 성옥 이훈동회장이 기탁한 기금에 의하여, 학회와 조선내화(주)가 공동 제정한 성옥상은 우리나라 요업기술의 선진화와 그 질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제고시킨 요업인에게 수여하는 큰 상으로 상패 외에도 부상으로 1천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학술활동 외에도 학회는 국제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 개개인의 해외 유명학회에서의 활동을 더욱 돕기 위하여 여러 해외 유명학회와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부터는 매년 일본과 한·일 세라믹스세미나가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어 우리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7년 10월의 미국요업학회 대표단의 한국요업학회 참가 및 1988년 4월 한국대표단의 미국요업학회 참가를 계기로 미국요업학회와의 학회 차원의 교류를 개시하였고, 1991년 3월 한국요업학회 대표단의 러시아요업학회 참가와 1991년 10월 러시아요업학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 심포지엄을 가짐으로써 러시아요업학회와 교류하였다.

이어 1993년 12월 일본요업협회와의 교류협정, 1994년 7월 호주요업학회참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교류협정, 1994년 12월 유럽요업학회 그리고 이탈리아요업학회 대표단 내한 및 교류협정 체결 그리고 1995년 10월 한국학회대표단의 유럽요업학회 참가, 1995년 3월 한·일 시멘트·콘크리트토론회 개최 등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년에는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Pac Rim에 많은 우리 요업인이 참가할 예정이며 제3회 Pac Rim을 우리나라에 유치키로 하고 있다.

국제학회와도 교류 활발

〈향후계획〉 인류가 불을 쓰게 된 이후부터 시작된 최고의 역사를 지닌 요업은 우리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류와 함께 발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요업은 8.15광복 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였고 학계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요업학회의 모태인 요업협회를 창설하신 안동혁선생님, 오시권선생님 그리고 학회를 창립하신 김동일선생님과 김용관선생님을 비롯하여 그간 반세기동안 요업계의 발전과 학계의 발전에 공헌하신 역대 학회장님 및 학계·업계의 중진을 비롯한 우리 요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학회는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의 관련 학회 및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1997년에 한국물리학회와 공동으로 제9회 국제강유전체학회를 개최하며, 1998년에는 한국요업학회 주관으로 제3회 Pac Rim을 국내에서 개최하는 외에도 매년 이미 교류협정을 체결한 미국·러시아·일본·호주·유럽 등지의 관련 학회와의 공동 학술발표회 개최와 대표단 및 학자 교류 등의 많은 학술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학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들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요업을 현대의 첨단 소재산업에도 이어지게 함으로써, 차세대 세계 요업계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ST